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3주일  
2021. 09. 05. (나해) 제2284호

# 제주보



경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경산성당  
에서  
그림  
2021  
7월 어느날  
+ Bernard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이사 35,4-7L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2독서** 야고 2,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7,31-37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에파타



효자본당 주임 | 홍창익 비오 신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마르 7,32-35)

오늘 복음은 정말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는 예수님의 “에파타”라는 말씀은 정말 기쁜 소식인 복음일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상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의 “에파타”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주었고, 새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파타”라는 기쁜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많은 일상이 묶이고 답답함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사도 기도도 만남도 모두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면서 정상적으로 대화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와 단절이 일상화되면서 스스로가 자꾸 위축되고, 공동체성은 사라지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에파타”가 우리에게 빨리 들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하루빨리 열리는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에파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 봅시다. “에 파 타!” **궂**

## 입타의 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입타는 길앗 사람으로 창녀에게서 났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내쳐졌다가 이스라엘이 암몬인들 때문에 힘들어지자 길앗의 원로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 돌아온다. 주님을 믿고 암몬인들과 전쟁을 시작한 입타는 승리하게 된다. 입타의 딸이 등장하는 건 입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건 지독한 비극의 시작이었다.

입타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갈 때, 처음으로 마중나오는 제 집안의 사람을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했었다(판관 11,31).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의 이러한 표현이 현대적 감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다. 딸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마뜩잖다. 아버지 입타가 맹세한 것을 제 입으로 그대로 읊는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부추긴다.

입타는 자신의 맹세를 전쟁 전에 공개적으로 내뱉었다. 입타의 딸은 그 맹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제일 먼저 집을 나서 아버지를 맞이한 입타의 딸은 집안의 이름 모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아버지의 맹세에 자신을 내어맡긴 셈이다.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자 작정했던 입타의 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집안의 가장은 제 식솔들을 제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재산의 일부로 생각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사회상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 지점에서 하느님께 대한 맹세를 지켜야만 한다는 입타와 그의 딸의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굳이 꼬집어내어 한 여인의 희생에 둔감해지는 무서운 해석을 되뇌는 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일테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 나름의 생리와 그로 인한 부조리는 그 자체로 간직하는 것이니. 다

만 우리가 짚어볼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희생과 전쟁의 승리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가 공존하는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다.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다(판관 11,35). 입타의 비통함은 저 스스로 맹세한 것에 대한 무력함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사이에 갈라진 틈을 정확히 겨눈다. 입타의 딸 역시 그러했다. 아버지의 맹세대로 따르긴 하되, 두달의 시간 동안 제 처지에 대한 울부짖음을 청했고, 떠나가 울었고, 돌아와 죽었다.

입타의 딸은 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승리를 받아들인 셈이다. 여기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무모함이 중첩되어 있다. 입타의 딸이 죽어간 것은 한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남성 위주의 사회가 지닌 폭력적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아닌가 싶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일이 깊어지고 진지해질수록 우린 제 자신의 신앙이 절대적 맹신으로 타락한다는 위험을 깨닫게 된다. 그 맹신이 사회적 권력까지 얻어 누릴 때, 사회적 계급 투쟁에서 밀려난 약자들의 고통은 그 맹신의 자연적 귀결일 것이다. 그런 어처구니 없음에 하느님은 입타의 이야기처럼 침묵으로만 등장하신다.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입타의 딸’의 희생을 내버려둔 채 하느님을 믿고 따르다며 헛된 맹세를 수도 없이 되뇌는 건 아닌지, 하느님의 침묵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닌지... **필문**

“그거 하믄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 파스카 청년성서 모임

파스카청년성서모임 지도신부 | 김주현 알베르토 신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삶 속에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쁘고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며 희망을 찾는 파스카청년성서모임입니다.

파스카청년성서모임에서는 단계별 성경공부(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후, 공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리하는 단계별 연수를 통해

- ㉠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고 체험하며,
- ㉡ 함께 공부하는 이웃과의 깊은 내적 만남과 기도를 통해 삶과 사랑을 나누고,
- ㉢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인간을 이해하여,
- ㉣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 복음화에 앞장서는 청년사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3, 9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봉사자를 포함하여 3~4명의 팀공부 그룹을 구성합니다. 봉사자와 함께 성경읽기, 배움, 나눔(묵상)의 순서로 각 단계별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 후 공부 내용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연수(피정)를 통해 각 단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각자가 느낀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거 하믄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우리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밥은 나오지 않지만, 감사하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공부를 한다고 모든 일이, 모든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씀의 힘을 증언합니다.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파스카청년성서모임은 청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궤약**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황일광(黃日光) 시몬은 천한 신분 출신으로 어린 시절을 아주 어렵게 생활하였다. 1792년 무렵, 시몬은 홍산 땅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에 우연히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천주교 신앙을 접하자마자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동생 황차돌과 함께 고향을 떠나 멀리 경상도 땅으로 가서 살았다.

교우들은 시몬의 사회적 신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애덕으로 감싸주었다. 양반 집에서까지도 그는 모든 교우들과 똑같이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그는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다.

“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1800년 2월 시몬은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 살고 있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의 이웃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황사영 알렉시오, 김한빈 베드로 등 여러 교우들과 자주 교류하였다. 이제 그의 열심은 날로 더해져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이르렀다. 그 후 아우구스티노 회장이 한양으로 이주하자, 시몬도 아우와 함께 한양 정동으로 이주한 뒤 땀나무를 해다 팔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교회 일을 도왔다. 또 주문모 야고보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교우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는 기쁨도 얻게 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황일광 시몬은 땀나무를 하러 나갔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옥으로 끌려갔다. 이후 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아무도 밀고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굳건하게 참아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의 추상같은 호령에도 굴하지 않고 천주교를 ‘성스러운 종교’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천주교 신앙을 올바른 길로 생각하여 깊이 빠졌습니다. 이제 비록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어찌 배교하여 천주교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빨리 죽기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그 결과 시몬은 다리 하나가 부러져 으스러지도록 잔인하게 매질을 당한 다음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조정에서는 이와 동시에 ‘황일광을 고향으로 보내 참수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몬은 고향인 홍주로 이송되었다. 그는 홍주에 도착하는 즉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는데, 이때가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황일광 시몬**  
(1757~ 1802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이용길(세례자요한)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이용길(세례자요한, 향년 77세) 신부님께서 지난 8월 25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8월 27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 23.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③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에 마리아와 요셉이 '네.'라고 응답한 그 신비, 목자들이 보여 준 기쁨과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경배, 이집트로 피신, 시메온과 한나에게 알려 주신 약속의 성취, 어린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율법 교사들의 경탄 등, 하느님 나라의 신비 안에서 완성하실 때까지 30년의 긴 세월을 살피보아야 합니다. 이는 가정생활의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성탄의 신비와 나자렛의 신비입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에서 실천된 사랑과 신의의 계약은 모든 가정을 형성하는 원칙을 밝혀 주며, 삶과 역사 안에서 겪는 우여곡절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자렛의 성가정을 통하여 가정 교육이 얼마나 기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지 이해하게 되고 사회 질서에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 64~66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 생활 소음(경적, 층간 소음, 컴퓨터, TV 소리 등) 줄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 말씀의 해 안내지 34호 정답

1. 유다 마카베오, 요나단 2. 성전(성소)을 정화하고 다시 봉헌, 제단 봉헌 축일 3. 하시드인들, 아론의 후손인 사제 한 사람이 군대와 함께 와서 그가 자신들을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4. 로마인들

37호(9월 19일)부터 '시서와 지혜서'가 시작됩니다! 중단하신 분들도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도



##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6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8일(수) 10:00 평화성당
선교센터 후원회 미사	9월 6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1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	-

### 성소 | 피정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9.12(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순례(추자도 성지 포함)

기간: 9.12~15 / 9.25~28 / 10.2~5

10.15~18 / 11.6~9 / 11.14~17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 교육 | 모집 | 기타

#### 주일 성령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시: 9.12(일), 9.19(일), 9.26(일)

9:30~18: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고령)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2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기간: 9.10(금)~14(화)

내용: 간호학과/사회복지/상담심리

문의: (043)270-0100~0102

#### 가톨릭상지대 2022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10(금)~10.4(월) 수시 1차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기간: 9.13(월)~30(목)

주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금릉2길 24

주최: 사랑의씨든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문의: (061)432-9241

####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 DCU

DAEGU CATHOLIC  
UNIVERSITY

## 수시모집 9.10(금) ~ 9.14(화)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동협방향 100m)

U&I

###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공장직영도매(동고령IC)

###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전,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헬스텍피아 보청기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행,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659 이앤씨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경환(토마스) 몬시뇰  
1999년 9월 10일

† 황용식 신부님 선종 1주기 미사

일시: 9월 11일(토) 11:00  
장소: 가톨릭 군위묘원  
\* 기일 9월 18일(토)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교양)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마감: 8월 말까지(선착순)  
문의: 660-5554~6  
<https://conedu.cu.ac.kr>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추가 모집

기간: 9.10(금)~12.5(일)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대상: 19세 이상 선착순 3명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바오로딸 9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9.18(토) 15:00~16:30  
주제: 뮤직토크\_성경 과외 해주는 신부  
강사: 허진혁 신부  
예약: 바오로딸, (010)6681-5185

대구ME 382차 비대면 주말

382차: 10.1(금)~3(일)  
장소: 부부 각 가정 / 문의: 983-0521  
코로나 걱정없이 가정에서 하는 ME주말  
코로나 어둠 속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다시 한번

채용 | 안내

전인병원 조리원 채용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  
자격: 경력 무관, 해당직 유경험자 우대  
문의: 670-5881

성요셉재활원 직원 채용

업무: 생활재활교사(장애인 일상 케어)  
대상: 57세 미만 남·여(자격사항 없음)  
위치: 동고령IC입구(논공위천삼거리 5분)  
문의: (054)954-4176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12.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  
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주소  
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행사 | 모임

9월 가정특강 온라인 강의 배부

일시: 9.10(금) 10:00  
주제: 소통으로 가꾸는 부부의 사랑  
시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검색\_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경축\_대구가톨릭평화방송 개국25주년

가스통신부의 보든깨살 유튜브 특집  
\_25살, 이제는 찾아갑니다  
: 8.18~9.8(매주 수) 16:05~16:50  
그대에게평화를: 9.9(목) 14:00~15:00  
주님안에서기뻐하여라: 9.9(목) 16:05

교육 | 모집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정,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성물도예, 수필입문,  
사범꽃꽂이, 칼림바, 발성법, 장구,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www.theopen-daegu.co.kr](http://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승계 하라!  
**더열린병원**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제주 1일 성지순례(4명 이상 출발)  
제주도성지(6천) 59,000원  
추차도 69,000원 (주)미카엘여행사  
**제주성지순례 3일/4일**  
9.24(금)~9.26(일) 10.8(금)~10.10(일)  
10.11(월)~10.14(목) 10.18(월)~10.20(수)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http://www.michaeltour.co.kr)

**신랑각시결혼**  
전문식·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원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암·면역**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발아**  
**정형외과**  
무지외반증·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평발 깔창 치료  
환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팔금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